

‘히자버’와 ‘질뽕’:

히잡 착용의 다양화와 인도네시아 보수 남성 무슬림의 대응*

김형준**

이슬람에서 여성의 신체, 특히 머리와 목 부위를 가리기 위한 복장인 히잡은 다의적이고 중층적인 의미의 복합체로서 상이한 종교적, 정치적 지향을 지닌 집단 간 경합의 대상이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히잡 착용에 대한 남성의 대응 양상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무슬림 여성의 복장에 미칠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우연한 계기를 통해 가시화되었다. ‘히자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져서 패션으로서의 히잡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과 히잡을 함께 입는 패션을 지칭하기 위해 신조어 ‘질뽕’이 등장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신조어의 등장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전개된 여성 복장과 관련된 논란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초점 맞추어질 문제는 질뽕에 대한 보수적 무슬림 남성의 태도와 대응으로서, 이전까지 심각하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여성의 복장이 이들에 의해 주도되는 이슬람 담론에 포함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개입과 통제의 시도가 표출되었음이 분석될 것이다.

〈주요개념〉: 히잡, 질뽕, 히자버, 질뽕, 이슬람 복장

* 2014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관리번호-C1011685-01-01). 이 논문을 읽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포함한다.

**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라마단’, ‘지하드’, ‘할랄’과 같은 아랍어 어휘가 우리의 일상 언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이 중 이슬람권 내외 모두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온 어휘 중 하나는 ‘히잡(hijab)’이다. 여성의 신체, 특히 머리와 목 부위를 가리기 위한 복장을 지칭하는 히잡은¹⁾ 다의적이고 중층적인 의미의 복합체로서 상이한 종교적, 정치적 지향을 가진 집단 간 경합의 대상이었다.

서구식 복장에 익숙한 비(非)무슬림에게 있어 히잡은 거추장스럽고 자유롭지 못한 옷으로 비추어져왔다. 신체의 주요 부분을 감춰야하는 복장에 호감을 갖기는 쉽지 않고 공적 영역에서 일 년 내내, 나아가 일생 동안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수긍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정서를 고려할 때, 히잡이 남성중심적 종교에 대한 여성의 복종을 표현하고, 여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식의 설명은(Richardson 2004: 118-120; Arimbi 2009: 36) 그리 무리한 해석처럼 비추어지지 않을 수 있다.

외부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간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히잡은 무슬림 여성에게 있어서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자신의 종교적, 정치 사회적 정체성과 저항을 드러내기 위해 무슬림 여성은 히잡을 착용하기도 거부하기도 했다(Delaney 1994: 168-169; Winters 2006: 289-291; Arimbi 2009: 37). 여성주의적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 무슬림 여성은 히잡을 쓰기도 했고 다른 여성은 그것을 벗고자 했다(Mernissi 1987; Stowasser 1994: 132-133; al-Saji 2010: 889-891). 자유와 해방, 진보의 상징으로서 무슬림 여성은 히잡을 쓰기도 했고 벗으려하기도 했다

1) 무슬림 여성의 머리와 목 부위를 가리기 위한 복장을 가리키는 통칭어(generic term)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지역의 전통에 따라 상이한 어휘가 이용된다. 그 중 히잡(hijab)이 통칭어로 자주 이용되는데(el Guindi 1999: 143), 통칭어로 쓰이지 않을 때 이 용어는 머리와 목 부위만을 가리는 상대적으로 짧은 형식의 베일을 지시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질밥(jilbab)이라는 용어가 때로 통칭어로, 때로 특수한 형식의 히잡을 일컫기 위해 사용된다. 편의상 이 글에서는 히잡이라는 표현을 통칭어로 이용할 것이며, 직접 인용에 포함된 경우에는 질밥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것이다.

(Macleod 1991; Shirazi 2001: 92-93; Arimbi 2009: 38-39). 또한 근대성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무슬림 여성은 히잡을 착용하려 한 반면 다른 무슬림 여성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Bullock 2002: 98-99; Mcbrien 2009: S135-S136; Perkins 2012: 561).

히잡의 형태적 다양성은 그것에 부여되는 의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머리와 목 부위를 가리는 형식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눈을 제외한 얼굴 부위를 가리는 형식(니잡: niqab), 눈 주위를 망사로 가려 외부로 노출되는 피부가 없도록 하는 형식(부르카: burqa), 서양의 베일처럼 착용해서 머리카락 앞부분과 목의 일부가 노출되는 형식 역시 존재한다. 히잡의 색상이나 무늬 역시 차이를 보여서, 무채색만으로 만들어진 히잡도 있고, 화려한 색상과 무늬의 천을 이용한 히잡도 존재한다. 히잡 착용 스타일 역시 차이를 보여서, 머리밴드를 두른 후 그 위에 천을 겹겹이 둘러모양을 내는 방식도 있는 반면 핀으로 천을 고정시켜 착용하는 단순한 방식도 존재한다.

히잡의 종류, 형태, 스타일이 가져오는 의미상의 차이를 고려해보면, 히잡에 대한 연구는 본질론적(essentialistic)이거나 결정론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al-Saji 2010: 890-891). 히잡에 대한 최근 연구 역시 그것이 쿠란과 하디스(Hadith: 선지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경전)의 내용이나 이슬람 학자의 해석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중층적 의미부여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히잡에 대한 접근은 종교적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역사적 상황을 포괄해야 하고, 초국가적이면서도 국가적인, 나아가 지역적인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Brenner 1996: 690; Shirazi 2001: 180; Arimbi 2009: 39).

히잡의 다양성, 다의성에 주목한 연구에서는 그것을 착용하는 여성의 시각과 행위자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이런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점은 히잡에 대한 남성의 시각과 대응이다(Macleod 1991: 120-124; Bullock 2002: 85-135). 많은 연구에서 남성의 시각은 히잡 관련 경전 내용이나 종교지도자의 남성중심적 해석으로 환원된다. 히잡의 의미가 경

전을 통해 밝혀질 수 없는 것처럼 히잡에 대한 남성의 시각과 대응 역시 역사적 진공 상태에 있지 않으며 가변적 성격을 취한다. 따라서 히잡 착용의 다차원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히잡에 대한 여성의 시각과 행동을 남성과의 관련성 속에서 검토해야 한다(el Guindi 1999: 117-119; Abbas 2015: 155).

히잡 착용에 대한 남성의 대응 양상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히잡 착용에 미칠 영향은 최근 우연한 계기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가시화되었다. 히잡을 가리키는 현지용어 ‘질밥(jilbab)’과 영어 어휘 ‘뽐(스)(boob[s])’가 결합하여 ‘질뽐(스)(jilboob[s])’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고²⁾ 몸매가 드러나는 옷과 히잡을 함께 입는 패션을 지칭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질뽐’이라는 표현이 유행하게 되자,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남성에게 의해 제기되었고, 이들은 히잡을 어떻게 착용해야 하고 어디까지가 용인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간여하려 했다.

질뽐 논의에 대한 남성의 개입은 질뽐 직전에 등장한 ‘히자버(hijaber)’, 그리고 히자버 이전의 여성 복장에 대한 이들의 대응 방식과 차이를 보였다. ‘히잡’과 영어 접미사 ‘er(s)’이 합쳐져 만들어진 히자버(즈)는 패션으로서의 히잡을 지지하는 여성을 일컫는 말로서³⁾ 이들은 전통적으로 강제된 히잡 개념에 반기를 들고 무슬림 여성성을 표현할 대안적인 방식을 모색하고자 했다. 기존의 남성중심적 종교 해석에 저항하는 차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자버에 대해 남성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질뽐에 대한 남성들의 적극적인 대응은 이전까지 수면 아래에 놓여 있던 여성의 영역에 간섭하려는 욕구의 표현이었다. 이들은 이전까지 개입

2) 처음 출현 당시의 표현은 영어의 복수형 어미 ‘s’가 첨부된 ‘질뽐스(jilboobs)’였다. 이 표현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복수형 어미가 제외된 ‘질뽐(jilboob)’이 빈번하게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질뽐’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것이다.

3) 영어 접미사 ‘er’에 복수형 어미 ‘s’가 첨가된 형태인 ‘히자버즈(hijabers)’가 이 개념을 처음 제기한 여성들에 의해 사용되었지만, 이 후 복수형 어미가 제외된 형태가 빈번하게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히자버’라는 표현이 사용될 것이다.

하지 못했던, 혹은 개입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문제를 질북의 등장과 함께 남성중심적인 틀 속으로 포섭, 통제하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질북의 대두는 히잡을 둘러싼 지형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전까지 크게 관심을 받지 않던 여성의 복장이 이슬람 담론의 주요 요소로 포함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질북과 히자버라는 신조어의 등장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전개된 여성 복장과 관련된 논란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초점 맞추어질 문제는 질북에 대한 남성의 태도와 대응으로서, 이전까지 심각한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여성의 복장이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는 이슬람 담론에 포함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개입과 통제의 시도가 표출되었음이 검토될 것이다. 이와 함께, 시기적으로 먼저 등장한 히자버의 활동이 질북 논란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역시 분석될 것이다. 이를 통해 히잡을 중심으로 한 남성과 여성 간, 그리고 상이한 스타일을 지지하는 여성 간에 전개되는 경합과 타협의 양상, 히잡 문제가 논의되는 종교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주요 분석 대상은 인터넷 상에서 찾을 수 있는 미디어 보도, 블로그, 토론 그룹의 자료로서, 히잡에 대한 다양한 의미부여와 대응 양상 그리고 질북 관련 담론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용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현지조사 자료 역시 히자버와 질북 관련 담론을 해석하기 위해 활용될 것이다. 2016년 3월을 전후하여 2주 정도 수행된 현지조사 과정에서 10명의 무슬림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얻어진 자료 중 일부가 본문의 논의 과정에 포함될 것이다.⁴⁾

4) 현지조사의 목적은 히잡 착용 여성의 미적 표현과 실천 양식에 대한 검토로서, 이 논문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았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이 논문의 주요 관심사인 국가적 수준의 담론 전개 양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이용될 것이며, 인터뷰 자료 중 일부가 논의 과정에서 인용될 것이다. 현지조사의 주요 연구대상은 중부 자바 족자까르따(Yogyakarta)에 거주하는 10명의 무슬림이었다. 5명의 여성은 20대 초반의 여대생으로서 미혼이었던 반면, 5명의 남성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연령대에 속했고 1명만이 미혼이었다. 남성 모두는 이슬람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종교적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1~2 시간에 걸친 개별 인터뷰가 1~2차례씩 진행되었고, 2번에 걸쳐 여성들과 히잡 구매 활동

다음 절에서는 히자버와 질빔 담론이 부상하기 이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히잡과 관련되어 전개된 국가적 차원의 변화 양상이 제시될 것이다. 3절에서는 히자버의 지향과 활동,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검토될 것이며, 4절과 5절에서는 질빔에 대한 보수적, 남성중심적 이슬람의 대응 양상이 중점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2.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과 히잡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인도네시아에서의 히잡 착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히잡은 무슬림에게 요구되는 종교적 의무 중 필수요소로 인정되지 않았고, 일반인 중 극히 제한적인 여성에 의해서만 일상적으로 착용되었다(Tahir and Triantini 2014: 3). 종교적 의례나 공식 모임에서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하기도 했지만, 이 때 착용된 히잡은 머리카락과 목의 일부만을 가리는 스카프 형식의 *끄루둥(kerudung)*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히잡에는 종교적 광신과 같은 부정적 의미가 부여되었다(Brenner 1996: 675).

1970~80년대를 거치며 인도네시아 사회에서는 ‘이슬람 부흥’ 혹은 ‘이슬람화(Islamization)’라 불리는 변화가 발생했다. 이슬람과 종교적 의무에 대한 자의식을 고양시킨 이 움직임은 대학생에 의해 주도되었으며(김형준 2013: 187), 여대생 사이에서 이는 히잡 착용의 증가를 가져왔다. 히잡을 둘러싼 변화의 징후는 1980년대 후반 그것을 둘러싼 논란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공립학교에서의 여학생 히잡 착용 금지에 대한 법적 제소가 제기되었고, 히잡 착용을 불허하던 정부는 1990년대 초 이를 용인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했다(Hamdani 2007: 84-85).

1990년대를 거치며 히잡 착용 여성이 꾸준히 증가했다(Warburton

을 같이 행했다.

2006: 27). 이 시기에 새로 히잡을 착용한 여성에게 있어 이는 ‘개종에 가까운 경험’으로 받아들여졌고(Smith-Hefner 2007: 402) 이슬람 정체성과 종교적 헌신을 표현했다. 따라서 히잡 착용 여성은 주위 사람들에게 의해 종교적 자의식을 가지고 이슬람 교리를 엄격하게 실천하는 무슬림으로 이해되었다(Brenner 1996: 688).

2000년대를 전후하여 히잡 착용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환경이 조성되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히잡 착용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히잡이 여대생의 필수품으로 간주될 정도의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Smith-Hefner 2007: 413). 히잡 착용이 확산되자 그것에 종교적 신실함을 넘어서 다양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음이 명확해졌다. 이슬람식 이상 사회를 꿈꾸는 집단에게 있어 히잡이 정치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원이었던 반면, 대학 교육을 받고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여성에게 있어 그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표현해주는 기제로, 주위의 시선에 민감한 이들에게 있어 그것은 시대적 변화에 뒤처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치안 불안과 낯선 남성의 추근거림에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있어 그것은 자신을 보호할 무기로, 유행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있어 그것은 미적 표현을 다양화할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Hasbullah 2000: 18-19; Warburton 2006: 57-64; Jefferies 2011).

히잡에 부여되는 의미의 다변화는 질밥 스타일의 분화를 촉진했다. 종교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집단에서는 외적 차이를 축소할 스타일, 즉 무채색이 주를 이루며 얼굴과 손을 제외한 상반신 전체를 뒤덮을 수 있는 커다란 덮개 형식이 선택되었다. 사회경제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집단에서는 외적 차이를 확대시키는 방향, 즉, 화려한 색상과 무늬의 천으로 만들어지고 상반신의 일부만을 덮는 스타일이 선호되었다. 하의의 경우에도 차이를 보여, 전자는 몸의 윤곽을 가리는 폭이 넓은 치마를 착용한 반면, 후자는 폭이 좁은 치마뿐만 아니라 바지를 이용했다. 패션을 중시할 경우, 히잡과 결합되는 옷에는 제한이 없어서 “몸에 꼭 끼는 청바지, 발끝이 트인 하이힐 샌들, 몸에 꼭 맞는 블라우스 혹은 드물게는 몸통의 일부가 드러나

는 짧은 티셔츠”(Smith-Hefner 2007: 413)가 히잡과 함께 착용되었다. 히잡과 다양한 복장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그것이 패션 아이템으로 전환될 기반을 공고히 했다.

히잡 착용 여성의 증가는 무슬림 남성에게 의해서도 쉽게 인지되었다. 과거 히잡이 일상적으로 이용되지 않던 상황과 비교될 때, 히잡 착용은 종교적 의무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었고 호의적으로 평가되었다(Arimbi 2009: 41). 새로운 히잡 스타일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가 주를 이루었다. 어떤 스타일이든 히잡을 쓴다는 행동 자체가 그것을 쓰지 않을 때보다 진일보한 행보로 비추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Kusnindya 2002; Ridlowati and Rasyidah 2007: 62-63).

히잡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가 유지되었지만 그것이 히잡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은 아니었다. 인도네시아의 주류 이슬람 세력에게 있어 히잡에 대한 보수적 관점은 유일한 해석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해석에 따르면, 히잡은 남성의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은폐하기 위한 복장이다(Smith-Hefner 2007: 402-405). 여성의 몸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남성의 성적 충동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이 관점은 남성중심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었다.

히잡에 대한 보수적, 남성중심적 시각에 반대하는 입장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liberalism)라 불리는 관점은 히잡 착용을 종교적 문제가 아닌 개인적 문제, 즉 여성 개개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이해했다(Hamdani 2007: 122-125; Kusmaningtyas 2014). 종교적 의무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히잡은 관습과 취향에 따라 개인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⁵⁾ 예를 들어 이슬람 학자

5) 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인도네시아 무슬림 지식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종교 해석 방식이다. 신근대주의(neo-modernism), 실체론(substantialism)으로도 불리는 자유주의는 교리해석에 있어서의 역사성과 맥락성을 중시했으며, 종교와 정치의 분리, 토착화, 교리의 근본적 취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종교적 다원주의를 강조했다. 자유주의적 시각은 이슬람 내 여성주의(feminism) 형성에 있어 영향을 미쳤다. 자유주의와 관련해서는 김형

루스피(Luthfie)는 예배할 때에만 관습적으로 착용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히잡을 비키니에 비유했다. 수영을 위해 비키니를 입는 것처럼 예배를 위해 히잡을 쓰는 것이며, 수영장 밖에서 비키니를 입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비추어지는 것처럼 히잡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다.⁶⁾ 이처럼 히잡에 대한 대안적 시각이 존재했지만 그것은 이슬람 담론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놓였다. 보수적 성격의 주류 이슬람을 대표하는 ‘인도네시아 이슬람지도자 위원회(Majelis Ulama Indonesia: 이하 MUI)’⁷⁾에 의해 자유주의가 이단적 종교 해석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MUI 2005), 히잡에 대한 대안적 시각은 제한된 집단 내에서만 수용되었다.

히잡 착용이 증가하고 스타일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도 히잡에 대한 주류 이슬람의 보수적, 남성중심적 시각은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히잡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계속되었을지라도 히잡의 다양화가 보수적 무슬림과 갈등상태에 놓일 개연성은 상존했다.⁸⁾ 이러한 갈등의 현실화 가능성은 ‘히자버’로 자신을 규정한 여성들이 등장함에 따라 점차 높아져 갔다.

준(2008)을 참조할 것.

- 6) <https://www.arrahmah.com/read/2012/01/06/17268-luthfie-syakuni-tokoh-jil-hinadan-katakan-wanita-berjilbab-bodoh.html#sthash.VoNE7GFd.dpuf> (2015년 4월 25일 접속)
- 7) MUI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이슬람 단체를 포괄하여 결성된 연합체로 조직운영에서는 반관반민적 성격을, 이념적인 면에서는 보수적 성격을 취한다.
- 8) 다양화된 히잡 스타일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급진주의적 성향의 무슬림 사이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성 표현의 금지를 히잡의 근본 목적으로 이해한 이들은 다양한 히잡 스타일이 이러한 교리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Smith-Hefner 2007: 414). 하지만, 이들의 주요 관심과 활동이 정치적, 종교적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히잡은 이들 담론의 중심부에 위치하지 않았다. 소비주의에 대한 반대라는 시각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히잡을 비판한 경우에 대해서는 존스(Jones 2010: 624)를 참조할 것.

3. 히자버의 등장: 히잡의 패션화

2000년대를 거치며 히잡 착용은 유명 연예인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고, 패션으로서의 히잡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고조시켰다(Johns 2010: 622-623). 이러한 와중에 2010년 ‘히자버(hijaber)’라는 이름을 내세운 집단이 출현했다. ‘히잡’과 영어 ‘er’의 조합이라는 어원이 의미하듯, 히자버는 서구식 패션과 히잡의 결합을 지향하는 무슬림을 지시하며, 서구적 패션 유행을 따르면서 동시에 이슬람의 의무를 충족한다는 혼종적 의미를 지녔다.

패션으로서의 히잡을 지향한 여성들은 같은 성향을 지닌 여성들과 함께 모임을 개최했고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며 지지자를 규합했다. 동조자의 수가 어느 정도에 이르자 이들은 자카르타에서 ‘히자버(즈) 커뮤니티(Hijaber[s] Community)’를 결성했다(Dian 2014: 68-73). 결성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자카르타 히자버 커뮤니티의 2대 회장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⁹⁾

2010년 즈나하라(Jenahara), 리아 미란다(Ria Miranda), 디안 펠랑이(Dian Pelangi)를 포함한 몇몇 무슬림 여성은 서로가 ... 유사한 취향과 종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하는 소망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모임을 결성했다. ... 이들은 모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포스팅했다. 이 사진은 대중들로부터 매우 뜨거운 반응을 얻어냈다. 이들은 질박을 착용하면서도 유행을 좇을 수 있고 현대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영감을 받았다.

인용문에 제시된 히자버 선구자들은 젊은 디자이너로서 이들이 새로운 스타일의 히잡 복장을 선보이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드러나듯 히자버는 상업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의

9) <http://indonesia-feature.blogspot.kr/2013/11/profil-ketua-hijabers-community-jakarta.html>(2016년 4월 10일 접속).



출처: http://hijaberscommunityjakarta.blogspot.kr/p/about-us_28.html

〈그림 1〉 자카르타 히자버 커뮤니티 모임 사진

의상을 구입하거나 따라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상류층 여성이 히자버 커뮤니티의 주요 충원 대상이었다.

히자버 커뮤니티의 활동은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종교적 활동으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종교 강연이 주기적으로 개최되었다. 다른 활동은 중상류층 여성에게 다가갈 수 있는 패션쇼, 자선행사, 히잡 스타일 강습회, 요리강좌, 바자회였으며, 호텔, 쇼핑몰, 카페, 회원의 집, 부티크 등의 장소에서 행해졌다(Beta 2014: 380). 이들의 활동은 이전까지 이슬람과 쉽게 조화될 수 없는 것이라 여겨온 현대적이고 서구적이며 코즈모폴리탄적인 생활양식을 반영했다. 따라서 히자버 활동은 이슬람과 서구적 현대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들이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음은 양자 모두를 소유하려는 여성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반영하듯, 히자버 커뮤니티는 급속히 확산되어, 자카르타에서의 출범 이후 이년이 지난 2012년 46개 도시, 2개 대학에 지부가 만들어졌다(Beta 2014: 380).

상업주의, 서구적이고 현대적인 것에 대한 욕망, 그리고 이슬람의 공존은 히자버 커뮤니티의 행사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하나의 예로 동부자바의 중소도시 그르식(Gresik)의 히자버 커뮤니티가 2013년에 개최한 설립 1주년 기념식 포스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념식에서는 종교적 활동과 ‘세속적’ 활동이 동시에 추구되었다. ‘미스 히잡’ 선발대회는 세속적 성격을, 여성 이슬람 설교자(da'i Muslimah)의 강연은 종교적 성격을, 히잡 튜토리얼 및 종교적 노래가 포함된 초청 가수 공연 등은 양자의 혼합적 성격을 보여준다. 포스터에서 나타나는 또다른 특징은 과도한 영어 사용이다. ‘Power of you’, ‘launching’, ‘anniversary’, ‘simple style’, ‘spirit of woman’ 등과 같은 표현이 이용되는데, 이들 모두는 인도네시아어 어휘로 쉽게 대체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영어 사용이 현대적이고 코즈모폴리탄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주요 기제임을

고려해본다면(Lukens-Bull

2001: 361-362; Lauder 2008: 14), 이러한 언어 사용은 히자버의 지향을 요약적으로 보여준다.

이슬람과 현대적 패션의 결합이라는 히자버의 목표는 미디어에 의해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연예계 역시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유명 연예인의 히잡 패션이 미디어에서 활용되고, 이것이 연예인의 새로운 패션 창출 동기로 작용함에 따라 미디어와 히잡 패션 사이에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 패션으로서의 히잡에 대한 관심은 곧이어 종교적 영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청소



출처: <http://infogresik.info/hijabers-gresik-festival-for-moeslem-trend-2013/>

〈그림 2〉 그르식 히자버 커뮤니티 1주년 기념식 포스터

년을 대상으로 한 종교 관련 잡지나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히잡 튜토리얼’ 섹션이 만들어졌고, 다양한 히잡 스타일, 히잡과 다른 옷의 코디 방식이 소개되었다.

미디어와 온라인 공간에서 히자버가 유명세를 타게 되자 히자버 커뮤니티에 가입한 여성뿐 아니라 일반 여성들 역시 그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이들은 히자버의 스타일을 따르거나 스스로가 고안한 스타일을 개인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했고, 히잡과 패션, 나아가 히잡과 멋부리기의 양립가능성에 열광적으로 반응했다.

일반 대중으로의 히자버 담론 확산은 중부 자바 족자까르타(Yogyakarta)에서 만난 5명의 여대생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들은 히잡과 패션, 이슬람과 패션, 나아가 이슬람과 현대적 변화가 서로 대비되는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이슬람대학교에 다니는 한 여성은 다양한 스타일의 히잡을 착용하고, 히잡과 다른 옷을 코디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미적 감각을 표현하는 일이 종교적으로 금지되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표현했다.

저에게 있어, 질밥 착용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 질밥은 여성들이 더욱 자신감을 갖도록 하며, 구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여성의 개성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권장합니다.

5명의 연구대상자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사이 다양한 조건 하에서 히잡 착용을 시작했는데, 외적 강제가 일부 존재한 경우라도 히잡 착용 결정이 종교적 의무를 충족하고자 하는 자신의 판단에 기인했음을 지적했다. 히잡 착용을 시작한 후 이들이 곧바로 자신의 패션 감각에 부합하는 스타일로 옷을 입은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거치며 패션에 대한 관심을 형성했으며 히잡 패션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이를 따라하면서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만들었다.

히자버 담론이 이들에게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또다른 측면은

교리와 관련되었다. 히잡 패션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알라는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는 교리를 제시했는데, 이는 히자버에 의해 빈번하게 이용되었던 레토릭이다.¹⁰⁾ 히잡 패션에서 용인되는 기준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히자버의 담론을 가감 없이 수용했다. 한 연구대상자에 따르면 종교적으로 허용되는 히잡 패션은 “몸 전체를 가릴 수 있어야 하고, 천은 얇지 않고 두꺼워야 하고, 폭은 좁지 않고 넓어야 하고, 투명하지 않아야 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이는 히자버에 의해 반복적으로 지적된 무슬림 여성 복장의 필수 요건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었다.¹¹⁾

히자버들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이들의 주장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주요 이슬람 단체나 이슬람지도자들은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이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패션으로서의 히잡이 이슬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태도는 MUI의 문화예술분과 위원장인 콜릴 리드완(Cholil Ridwan)에 의해 예시될 수 있다. 방송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현한 파틴(Fatin)이라는 소녀가 그에게 보낸 편지가 여론의 관심을 받았는데 히잡 착용

10) 히자버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알라는 아름답고 아름다움을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하디스에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하디스 중 사히 무슬림(Sahih Muslim) 1권 164(171)절에 이 기록이 담겨있는데, 이 구절은 보통 아름다움(beauty)보다는 우아함(grace)으로 번역된다. 같은 구절이 아름다움으로 번역되어 있는 하디스는 리야드 아사리히(Riyad as-Salihin) 1권 612절이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디안(Dian 2014: 64)과 존스(Jones 2010: 622)를 참조할 것.

11) 보수적 시각에 따른 경우 무슬림 여성에게 금기시되는 복장에는 “몸을 가리지 않은 옷, 살결이 들여다보이는 옷, 속옷이 보이는 옷 ... 몸매가 튀어나올 정도로 몸을 바짝 죄는 옷, 특히 신체의 특정 부분을 부각시켜 성적 충동을 유발시키는 옷” 등이 포함된다(까르다위 2011: 103-104). 히자버 등장 이후 히잡 착용 규정을 정리한 자료가 출판물과 인터넷 상에 많이 유포되었는데,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12개의 요건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글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된 요건은 본문의 연구대상자에 의해 제시된 것이었다. 이 외에 남성의 복장을 따라하지 않을 것, 타인의 이목을 끌지 않을 것, 향수를 사용하지 않을 것, 금지되지 않는 천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 동물과 사람 그림이 천에 그려져 있지 않을 것, 검소하고 낭비적이지 않아야 할 것 등의 요건이 제시되었다. 히잡 착용 요건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www.akhwatshalihah.net/2015/11/ini-8-syarat-pakaian-wanita-muslimah.html>; <http://applehijab.com/6-kriteria-hijab/>; http://www.kompasiana.com/adisupriadi/syarat-utama-menggunakan-jilbab_5508837ca3331163312e39b1; <http://spirit.web.id/kriteria-hijab-syari-untuk-wanita-muslimah>(2016년 7월 2일 접속).

관련 질문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¹²⁾

무슬림에게, 그리고 특히 질밥을 쓰고 있거나 히자버[커뮤니티 회원]에게 ... 파틴을 지지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출연이 질밥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기를 기도합니다. 질밥 착용의 원칙은 ... 가려야 할 부위를 드러내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몸에 꼭 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콜릴 리드완의 답변에서는 히자버의 존재가 인정될 뿐 아니라 이들의 활동이 히잡 착용 확산을 위한 것이라는 히자버의 레토릭이 이용되고 있다. 그가 언급한 히잡 착용 기준이 히자버에 의해 제시된 것보다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역시 히자버에 대한 주류 이슬람의 태도가 비판적이지 않음을 시사했다.¹³⁾

5명의 연구대상 남성 역시 히자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들은 히자버가 머리카락과 목을 드러내지 않고 몸매를 숨기는 복장을 착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히자버 패션에서 나타나는 화려한 복장이나 화장, 액세서리에 대해서는 이성을 유혹하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문제시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되었다. 이들은 자신을 예쁘게 꾸미려는 것이 여성의 본능이라는 식의 의견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멋부리기를 좋아하며 히자버 범주에 속하는 부인을 둔 연구대상자는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내 처는] 화장품과 액세서리, 옷 구입을 정말로 좋아한다. 때로 몇 십만 루피아[몇 만 원]에 달하는 값비싼 물건을 구입하는데,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이기에 반대한 적은 없다. ... 이렇게 꾸미는 이유는 예뻐 보이고 싶어서이고 ... 그것이 다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족을 위한 것, 그리고 남

12) <http://kesaah.blogspot.kr/2013/04/pesan-dan-dukkungan-ketua-mui-pusat.html> (2016년 4월 24일 접속)

13) 콜릴 리드완이 답변에서 이용한 논리는 히자버에 대한 다른 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글은 히자버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제시한 후, 히잡 착용의 제조건을 언급하며 히자버가 이런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요청하는 식으로 작성되었다(Haifa 2012; Ummu 2012).

편인 내게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

연구대상 남성들에게서 나타나는 히자버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적극적인 인 의미의 긍정을 지시하지 않았다. 히잡과 패션의 조화라는 히자버의 핵심 주장을 이들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있어 히잡 착용의 핵심은 여성의 신체를 숨기도록 명령한 종교적 의무의 실천으로 이해되는 반면, 어떻게 숨겨야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이들은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의 인용에서처럼 예뻐 보이려는 여성의 욕망과 같은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이들이 히잡 스타일의 문제를 종교적 틀 내에서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이 문제가 이슬람 담론에서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취급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히잡과 관련된 담론에서 준거점은 히잡 착용 여부였고, 히잡 착용 방식은 주변적 문제로 치부되었다. 따라서 이슬람 담론의 준거점이 히잡 착용 여부에서 히잡 착용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히자버에 대한 이들의 호의적 태도 역시 변화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대상 남성들 사이에서 그리고 히자버 관련 담론에서 우호적인 태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최근 변화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화 흐름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성(性)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주류 이슬람에서 나타났고 소수의 급진적 무슬림에 의해 강력히 추동되었기 때문이다(Hamayotsu 2013; 김형준 2015). 표현의 자유를 이슬람의 틀 내에서만 허용하려는 경향이 복장에 있어서의 표현 자유를 주장하는 히자버에게 즉각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앞서 거론되었듯이 히잡 착용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히잡 착용 여성의 증가세가 지난 20여 년 사이에 나타났기 때문에 보수적 무슬림에게 있어서조차 히잡 착용 자체를 호의적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존재했다.¹⁴⁾

14)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두 이슬람 단체인 엔우(NU)와 무함마디아(Muhammadiyah)는

다음으로 고려될 문제는 히자버의 친이슬람 행보이다. 이들은 히자버 커뮤니티의 활동 목표 중 한 축을 종교로 설정해서 이들의 활동에는 종교 강연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패션쇼와 같은 소비적 성격의 행사라 할 지라도 ‘히잡 튜토리얼’과 같은 세션을 첨가함으로써 자신들의 활동에 종교적 정체성을 부가하려고 노력했다. 이들의 목표 역시 이슬람식 틀 내에서 설명되었는데, 한 히자버는 무슬림 패션의 아름다움이 여성들로 하여금 히잡을 쓰도록 유도하는 선교 활동이라고 규정했다.¹⁵⁾ 이들이 강조한 히잡 착용의 기준 역시 몸매의 완전한 은폐, 두껍고 불투명한 천의 이용 등 기존의 보수적, 남성중심적 해석을 적극적으로 포함했다. 이처럼 히자버의 활동과 담론에 주류 이슬람의 시각이 적극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이들은 비판적 시각의 대두를 회피할 수 있었다.

적극적인 이슬람 활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점은 히자버 중심 세력의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이다. 예를 들어, 자카르타 히자버 커뮤니티의 첫 회장은 유명인의 반열에 오른 패션 디자이너였고,¹⁶⁾ 2대 회장은 어머니가 전직 장관인 상류층 가정 출신으로 외국유학 후 뉴스 앵커로 활약하는 인물이었다.¹⁷⁾ 히자버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가 유명인은 아니었지만, 이

히자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일부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이들의 호의적인 태도를 추정할 수 있다. 엔우의 동부자바 주지부 부회장은 “이제 디자이너들이 유행을 따르면서도 이슬람의 규정에 부합하는 여성 복장을 다양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히자버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무함마디아의 경우 히자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종교지도자는 없었지만, 무함마디아 소속 대학교에 히자버 커뮤니티가 결성되었고 무함마디아 소속 대학생조직이 지역의 히자버 커뮤니티와 공동 활동을 펼쳤음을 통해 히자버에 대한 배타적이지 않은 태도가 유지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www.nu.or.id/a/public-m,dinamic-s,detail-ids,44-id,53794-lang,id-c,nasional-t,Tren+Jilboob++Tantangan+Bagi+Perancang+Busana+Muslim-.phpx>; <http://hijabcommunityuai.blogspot.kr/2013/01/grand-launching-hijabers-umj-community.html>; <http://immkalteng.blogspot.kr/2015/02/universitas-muhammadiyah-hijabers.html>(2016년 4월 23일 접속).

15) <http://ramadhan.kompas.com/read/2011/08/11/13253987/Hijabers.Community.Bersyiar.Melalui.Fashion.Taat.Kaidah>(2016년 4월 10일 접속).

16) [\(2016년 4월 10일 접속\).](http://m.log.viva.co.id/frame/read/aHR0cDovL20ubG9nLnZpdmEuY28uaWQyZnJhY28uaWUvcmlhZC9hSFwY0RvdkwzTmxiR1ZpZFhCa1YUUmxBU52Y2IM5b2FXcGhZbVZ5THc9PSIgY2xhc3M9ImJ1dHRvbjIgbGFyZ2U=)

17) <http://indonesia-feature.blogspot.kr/2013/11/profil-ketua-hijabers-community-jakarta.html>(2016년 4월 10일 접속).

들의 활동 내용과 장소, 비용을 고려하면¹⁸⁾ 중상류층 여성이 회원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히자버가 사회경제적 주류 집단으로 구성됨으로 인해 주류 미디어는 이들을 논란거리로 만들기보다는 이들의 활동과 패션 경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채택했다.²⁰⁾ 이러한 공생 관계는 공적 담론에서 히자버에 대한 비판적 태도의 부상을 억제할 수 있었다.

주요 담론에서 히자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인터넷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제기되었다. 히자버에 대한 비판은 명백히 분리되지 않지만 강조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종교적 틀 내에서의 비판으로서, 패션에 대한 강조가 히잡 착용 교리에서 벗어난다는 점, 즉 히자버 패션의 화려함이 남성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히잡 착용의 근본적인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였다(Cimot 2013). 이러한 비판에서는 남성의 관심을 끌만한 여성 용품과 행동을 가리키는 ‘타바루즈(tabarujj)’ 개념이 거론되었다. 히잡과 그에 어울리는 옷, 화장과 액세서리를 포함하는 히자버의 토틸 패션은 타바루즈를 금지하는 이슬람 교리에 위배된다고 지적되었다.

18) 유명 패션 디자이너가 만든 히잡과 그에 맞는 복장은 수천만 루피아(수백만 원)를 호가했다. 히자버 활동의 경우 호텔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십만 루피아(수 만원)에 달하는 참가비가 소요되고 모임에 맞는 복장을 구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해보면(Beta 2014: 8), 중하층 여성이 참여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과도했다.

19)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히자버들은 정치권 및 이슬람 세력과 용이하게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지역수준에서의 이러한 관계 형성은 북수마트라(Sumatra Utara)주 빈자이(Binjai)시 사례를 통해 예시될 수 있다. 히자버 커뮤니티가 형성된 후 이 단체는 시청, 종교성, MUI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했고, 지방 정부가 개최하는 행사에 초대되어 히잡 패션을 주제로 강의하거나 히잡 패션을 소개했다. 페브리나(Febrina 2014)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hijaberscommunitybinjai.blogspot.com/> (2016년 4월 20일 접속).

20) 히자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신문기사 제목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낯선 것으로 비추어진 적이 있던 질밥”, “히자버의 수가 빠르게 지속적으로 전진함”, “이제, 히자버의 시대” 등의 기사에서는 히잡이 착용되지 않던 과거를 히자버 등장 이후와 비교한 후 히자버의 확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기사와 관련되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www.spektanews.com/2013/08/jilbab-pernah-dianggap-asing-di-negeri.html>; <http://www.spektanews.com/2013/08/jumlah-hijabers-terus-merangkak-pesat.html>; <http://ramadhan.antaranews.com/berita/387271/dian-pelangi-sekarang-jamannya-hijabers> (2016년 4월 28일 접속).

히자버에 대한 또다른 비판은 이들의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생활양식과 성향을 문제 삼았다. 한 블로거는 히자버의 소비주의적 행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롱 섞인 비판을 제기했다.²¹⁾

히자버들은 카페에서 만나 소란스럽게 떠돌고, 밤늦게까지 파티를 열며, 새로운 제품이 나오자마자 구매하는 마니아다. 이들의 삶은 대도시 쾌락주의자들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차이는 이들이 머리와 목을 가리는 천을 쓴다는 것뿐이다. ... 이들에게 있어 히잡은 이슬람식 의무가 아니며 ... 단순히 상표일 뿐이다.

히자버의 현대적 생활양식은 서구적이고, 소비적인 것으로 규정되었고, 이러한 삶은 이슬람식 가치와 양립될 수 없는 반(反)이슬람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비판적 시각이 제한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만으로 이를 주변적인 것이라 판단할 수는 없다. 이들이 비판 대상으로 삼은 요소, 즉 남성의 시선을 끄는 멋부리기와 서구적 생활양식은 보수적 성향의 무슬림에게 있어서도 적절한 비판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²²⁾

정리하면, 히자버의 등장은 히잡 착용 여성의 증가에 기인했다. 히잡을 새로 쓰기 시작한 여성 중 일부는 천편일률적인 히잡에서 벗어난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욕구, 종교와 현대식 패션, 현대식 생활양식을 조화시키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슬람과 접목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신실함을 부각하려는 행보를 취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히자버는 보수적, 남성중심적 무슬림과 이중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한 편으로 패션으

21) <https://abisyakir.wordpress.com/2014/02/10/hijaber-tapi-hedon/>(2016년 4월 28일 접속).

22) 히자버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제시한 유일한 이슬람 단체는 급진주의적 성향의 히즈부 타흐리르(Hizbut Tahrir)였다. 히즈부 타흐리르는 이슬람에 부합하지만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히자버의 입장이 “세속적, 자본주의적이라 할 수 있는 패션 세계의 철학에 잘못 빠져들어” 있고, “이슬람의 가치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http://www.hizbut-tahrir.or.id/2012/09/20/eksploitasi-kecantikan-muslimah/>(2016년 4월 28일 접속).

로서의 히잡이라는 주장을 통해 이들은 기존의 보수적 해석과 차별되는 새로운 차원을 히잡 담론에 첨가하려 했다. 다른 한 편으로 히잡에 대한 남성중심적 해석을 지지함으로써 이들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의 출현 가능성을 제한했다. 히자버로 인해 새로운 시각의 출현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음은 이들과 구별되는 히잡스타일을 지칭하는 ‘질뽕’ 개념이 대두됨에 따라 명확해졌다.

4. 질뽕 담론의 등장과 전개

‘질뽕’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부상한 계기는 소셜미디어였다. 질뽕의 ‘jil’과 여성의 유방을 지칭하는 영어 속어 ‘boob(s)’의 결합어인 ‘질뽕(스)’는 트위터에 게시된 해시태그를 통해 2012년에 출현했으나²³⁾ 대중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후 2014년 초, 페이스북에 ‘질뽕(스) 커뮤니티(Komunitas Jilboob[s])’가 만들어지면서²⁴⁾ 이 표현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서로 나누는 것의 아름다움’을 목표로 하는 이 커뮤니티는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찾은 여성 사진을 모아 포스팅했는데, 질뽕의 어원이 의미하는 것처럼 몸의 윤곽, 특히 가슴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옷을 입고 질뽕을 착용한 사진이 그 대상이었다.

히자버와 같은 신조어였지만, 질뽕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녔다. 히자버가 히잡 패션을 옹호하는 집단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질뽕을 지지하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질뽕 커뮤니티를 만든 인물은 남성이며, 몸에 꼭 끼는 옷을 히잡과 같이 쓴 여성의 사진을 찾아 모아 놓았을 뿐이다. 질뽕은 관음증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남성에 의해 만들어졌고, 사진 공유 과정 역시 집단적 수준의 욕구 충족을 지향했다. 질뽕 커뮤니티에

23) <http://www.solopos.com/2014/08/08/fenomena-jilboobs-tak-ada-di-kamus-slang-darimana-istilah-jilboobs-524724>(2016년 4월 28일 접속).

24) <https://www.facebook.com/jilboobs.Indonesia/>(2016년 4월 20일 접속).



출처: <https://www.facebook.com/Jilboobs.Indonesia/>

〈그림 3〉 질밥 커뮤니티의 초기 프로필 사진과 댓글

게시된 글은 이러한 성격을 예시한다.

질밥 커뮤니티의 프로필 사진으로 한동안 이용된 〈그림 3〉에 대한 댓글을 살펴보면 3)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성에 대한 음담패설과 욕구를 표현한 짧은 글이었다. 질밥 커뮤니티가 인기를 끌자 사진의 노출 수위는 점차 높아져갔고 포르노성 사진 역시 포스팅되었다. 이러한 사진에 대한 댓글은 음담패설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었고 심지어 매춘을 선전하는 글이 첨부되기도 했다.

질밥 커뮤니티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남성의 모임이었다. 이 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사진이 게시되고 그것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의해 이용된다는 점이었다.

2014년 중반을 지나며 질밥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고 대중적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자 주류 이슬람을 대변하는 MUI의 개입을 초래했다.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MUI 소속 종교지도자 한 명은 질밥이 ‘하람(haram: 종교법상 금지된 행동)’이라는 파트와(fatwa: 종교적 결정)를 제시했다. 그는 이 파트와가 공식적 절차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는지만 이전에 발표된 파트와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다.²⁵⁾ 이후 MUI에 소속된 어떤 지도자도 이 파트와에 반

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MUI의 견해와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질북에 대한 파트와가 제시되자 신문과 방송에서는 이를 앞다투어 보도했다. 대부분의 보도에서는 파트와 소개 후 그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제시했지만, 일부에서는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켰다. 예를 들어 SCTV 방송에서 보도한 뉴스는 질북 파트와를 소개한 후 훈계조의 내용만을 덧붙였다.²⁶⁾

질북이 여성의 신체를 가리도록 하는 종교적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 질북 현상은 [올바르게] 질갑을 착용하는 여성들로부터 안타까움과 향의를 불러일으키는데 ... 그것이 히자버뿐만 아니라 무슬림 여성 일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모욕하는 것이라 평가되기 때문이다.

상당수 보도에서는 이슬람지도자, 히자버 커뮤니티 회원, 여성 연예인, 학자와 같은 관련 전문가의 입장을 소개했다. 이들의 의견에서는 찬반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찬반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 두 입장을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MUI 파트와에 동조하는 입장으로 대다수의 이슬람 지도자와 일부 여성 연예인에 의해 지지되었다. 이들은 몸매를 노출하는 복장이 남성의 성충동을 불러일으키고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질북 착용의 의도와 형식 모두 종교 교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했다.²⁷⁾

두 번째 입장은 거의 모든 히자버, 다수의 여성 연예인, 일부 이슬람 지도자에 의해 지지되었고, 미디어 보도에서 첫 번째 입장에 반대되는 것

25) 2001년에 제정된 MUI 파트와는 얼굴, 손, 발을 제외한 신체부위의 노출, 몸매를 드러내고 속이 비치는 옷, 몸에 꼭 끼는 옷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MUI 2001).

26) <http://www.liputan6.info/2015/06/jilboob-pakai-jilbab-tapi-payudara-dan.html>(2016년 4월 12일 접속).

27) 첫 번째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rona.metrotvnews.com/read/2014/08/07/274766/mui-jika-meresahkan-masyarakat-jilboobs-akan-ditindak-t;> <http://news.detik.com/berita/2655244/fenomena-jilboobs-di-kalangan-remaja-yang-me-rebak-jadi-perhatian-serius-kpai>(2016년 3월 25일 접속).

으로 소개되었다. 질북 착용 여성에 대한 따듯한 시선을 요구하는 이 입장은 질북 착용 여성의 허잡 착용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이들의 종교적 이해가 일천함을 강조했다. 시행착오의 기간 동안 이들에 대한 비판은 자제되어야 하는데, 허자버 패션디자이너 즈나하라(Jenahara)는 자신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했다.²⁸⁾

질북 착용은 하나의 과정이다. 일부는 올바른 질북 착용이 어떠한지 하는지를 지적하기를 원할 것이다. ... 하지만, 나는 질북 관련 현상이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질북 착용 여성이] 질북을 쓰는 올바른 방식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즈나하라는 질북 착용자에 대한 따듯한 시선을 요구했지만, 강조되어야 할 점은 그녀를 포함하여 질북에 대한 비판 자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입장과 동일한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역시 신체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도록 옷을 입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단지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첫 번째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 따르면 질북 착용 여성은 준비가 부족하고 종교적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로써, 격려와 칭찬을 통해 이들이 올바른 길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입장이 첫 번째 입장과 대비되는 견해로 설정됨으로써 질북 관련 담론은 남성중심적 관점을 강제하려는 입장과 그것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과정상의 실수를 이해하자는 입장의 대립으로 고정되었다. 이와 같은 구도가 형성됨으로 인해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난 관점, 예를 들어 복장을 종교적인 문제로 취급하지 않으려는 입장, 여성주의적 입장 등은 질북 담론에서 주변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질북 논쟁은 질북이 이슬람 교리에 부합한지를 논의하는 근본적 수준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남성중심적 시각 내에서의 ‘사소한’ 의견 차이처럼 비추어지게

28) <http://www.kapanlagi.com/showbiz/celebriti/jenahara-angkat-bicara-soal-jilboobs-0a2ca6.html>(2016년 3월 25일 접속).

되었다.

보수적,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난 관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질북 담론의 한 축으로 자리 잡지 못한 주요 원인은 대안적 시각, 특히 여성주의적 시각을 지지하는 집단의 침묵이었다. 여성주의적 시각을 지지하는 정부기관인 인도네시아 여성위원회(Komnas Perempuan), 그것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대규모 이슬람 단체 산하의 여성 조직들은 질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여성 관련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주저하지 않던 이들의 침묵으로 인해 질북에 대한 대안적 관점이 부각되지 못했다.²⁹⁾

남성중심적 시각이 인정된 채 방법론적 문제를 중심으로 질북 담론이 주도되는 상황에서 대안적 시각이 우연한 계기를 통해 공론화되었다. 유명 여배우인 자스키아 메카(Zaskia Mecca)가 인터뷰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대안적 관점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³⁰⁾ 그녀의 의견에 대한 반응은 기존의 보수적, 남성중심적 시각과 대비되는 관점이 대중, 특히 남성들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위해 다음 절에서는 온라인 포럼 까스꾸스(Kaskus)에서 진행된 자스키아 관련 논란이 검토될 것이다.³¹⁾

29) 여성주의자들의 침묵은 질북 관련 논란을 증폭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진 듯했다. 2000년대 이후 여성 관련 이슈가 성적 표현의 자유문제로 전환될 때 보수 세력의 공세가 강화되었음을 경험한 여성 단체에게 있어 질북 문제에 대한 거리두기가 보다 적절한 전략으로 비추어졌을 수 있다. 성적 표현의 자유문제를 대상으로 한 보수 이슬람 세력의 비판적 공세에 대해서는 김형준(2015)을 참조할 것.

30) 대안적 시각이 미디어에서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일부 신문보도에서는 질북에 대한 자유주의자, 여성주의자의 의견이 첨부되기도 했지만 대중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신문 기사를 참조할 것. <http://regional.kompas.com/read/2014/08/12/1922021/Ini.Alasan.Perempuan.Samarinda.Bergaya.Jilboobs>(2016년 4월 28일 접속).

31) 까스꾸스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온라인 포럼 사이트이다. 방문객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인도네시아 사이트 중 12번째에 랭크되어 있으며(2016년), 전체 회원수는 8백만 명, 일일 방문객 수는 90만 명에 이른다. 까스꾸스와 관련되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할 것. <http://www.alex.com/siteinfo/kaskus.co.id>; <https://bantuan.kaskus.co.id/hc/id/articles/214603738-Sejarah-KASKUS>; https://id.wikipedia.org/wiki/Kaskus#cite_note-popularitas-9

5. 질보 관련 논란: 온라인 포럼 까스꾸스의 사례

자스키아의 인터뷰는 “질보이 뭐가 잘못이죠?”라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일간지 템뽀(Tempo)에 게재되었다. 이 표현은 기사에 인용된 그녀와의 인터뷰 첫 부분에 제시되어 있었다.³²⁾

“정말로, 질보이 뭐가 잘못이죠?”라고 ... 패션쇼에서 만난 자스키아가 말했다. “질보 쓴 여성은 최근에야 끄루둥(kerudung: 질밥의 다른 표현)을 쓰기 시작해서 다른 옷이 없었을 수도 있을 테죠.”

히잡 착용이 얼마 되지 않아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자스키아의 의견은 히자버에 의해 자주 이용된 레토릭으로서, 인터뷰 서두의 도발적 질문이 흥미 유발을 위한 과장된 표현임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후 인터뷰 과정에서 그녀가 보수적, 남성중심적 종교해석과는 차별적인 시각으로 히잡을 바라보고 있음이 드러났다.

[질밥 착용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자스키아는 이러한 평가가 질밥을 쓰는 여성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히잡에 대한 자스키아의 견해에서 중시된 점은 의도였다. 그녀는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외적인 모습에만 기대어 질보를 평가하려는 시각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특정한 방식으로 히잡을 쓰거나 히잡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비(非)이슬람적이라 규정할 수는 없다.³³⁾

32) <http://seleb.tempo.co/read/news/2015/05/20/219667723/zaskia-mecca-apa-salahnya-jilboob>(2016년 3월 20일 접속).

33) 질보에 대한 자스키아의 시각은 다른 인터뷰 기사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녀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보다 더 나쁘고 못됐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실상 우리보다 더 좋고

외적인 면을 통해 타인을 평가하려는 경향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그녀의 주장은 문자그대로의 정전 해석을 강조하고 외적 행동과 교리와의 일치를 중시하는 보수적 시각에서 벗어나 있었다. 급진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았고 자유주의적 레토릭이 이용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각에 내포된 남성중심적 시각과의 차별성은 대중에 의해 쉽게 인지될 수 있었다.

이슬람을 소재로 한 영화에 출연했던 유명 영화배우라는 이유로 인해 자스키아의 인터뷰 기사는 곧바로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냈다.³⁴⁾ 이를 반영하듯 그녀의 인터뷰 기사가 까스꾸스(Kaskus) 포럼의 토론글로 상정되자³⁵⁾ 이를 동안 541개의 댓글이 달렸고 이후 추가된 글을 포함하여 전체 댓글의 수는 653개에 달했다. 전체 댓글 중 2개는 중복된 것이고 1개는 광고이며, 10개는 의미가 불명확했기에 640개 댓글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했다.³⁶⁾

인터넷 공간이라는 이유로 인해 1~2줄로 쓰인 댓글이 일반적이고 이모티콘이나 한두 단어만으로 작성된 경우도 많았지만, 10줄 이상의 댓글 역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 성격에 따라 댓글은 긍정, 부정, 중립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긍정적 댓글은 전면적 동의와 부분적 동의로, 부정적 댓글은 비판, 비판에 대한 단순 동조, 비아냥거림 및 응답

선한 사람'일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가 경멸하는 사람이 알라 앞에서는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질문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질문 착용 여성이 보다 적절하게 히잡을 쓰도록] 기도하면 되지, 질문을 없애버리려 하거나 질문에 대해 욕해서는 안된다"(Kartikawati 2014).

34) 자스키아의 인터뷰 기사가 템포(Tempo)에 실린 후, 이 기사내용은 다른 미디어나 블로그를 통해 확대재생산되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rohilonline.com/berita/detail/12272/2015/05/21/-kata-zaskia-mecca,-apa-salahnya-jilboob?--#.WDhpqKNUJow>; <http://pekanews.com/2015/05/zaskia-mecca-apa-salahnya-jilboob-netizen-bau-bau-pemikiran-liberal-nih/http://www.medanbisnisdaily.com/news/read/2015/05/21/164766/orang-suka-jilbab-yang-simpel/#.WDhp0KNUJow>(2016년 3월 20일 접속).

35) 질문 관련 포럼 사이트는 <https://www.kaskus.co.id/thread/555bdb55d89b0947238b4568> 이었다. 까스꾸스에는 질문을 주제로 한 포럼이 20여 개 개설되었는데, 자스키아 관련 포럼은 이 중 네 번째로 많은 페이지뷰(94,823회)를 기록했다(2016년 6월 25일 기준).

36) 포럼에 포스팅된 댓글에 덧붙여진 추가 댓글은 독립적으로 취급되어 계산되었다.

〈표 1〉 토론글의 성격 분류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합
비아냥거림	비판	비판동조	음담패설		동의	부분적 동의	
272	195	6	75	54	26	12	640

패설적 코멘트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었다. 640개의 댓글을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댓글 중 부정적 의견은 548개(86%), 긍정적 의견은 38개(6%)로서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부정적 댓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글은 기사에 대한 비아냥거림을 표현한 것이었다. 비판적 성격의 글과 비교할 때, 이 범주에 속한 댓글은 자스키아에 대한 조롱과 인식공격을 목적으로 하거나 악의적 표현이나 과도한 감정이 드러난 글을 주로 포함했다.

‘비아냥거림’ 범주에 속한 글은 그녀가 종교에 대해 알지 못하고 멍청하며 나대려한다고 비방했고, 대중의 이목을 끌어 인기를 높이려 한다거나 허접 장사를 하려 한다는 식으로 그녀의 인터뷰를 평가절하했다. 종교적인 면에서 그녀가 이단에 빠졌다고 평가되기도 하며 심지어 그녀를 이교도(kafir)로 지목한 경우도 있었다. 자주 이용된 또 다른 방식은 그녀의 과거 행적이나 그녀의 남편인 영화감독 하눔 브라만띠오(Hanung Bramantyo)를 거론하면서 경멸조의 글을 쓰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처음 글은 그녀의 과거 흡연 사실을 언급하며 그녀 의견의 부적절함을

〈표 2〉 비아냥거림 투의 댓글 사례

번호	id	댓글
62	ceresmanis	담배 피우다 걸렸던 배우지, 그렇지? 허접 쓰고 담배 피웠다니 ... 옛날에 못됐던 여자라 나쁘네. 😏
73	kendimjl	그녀 같은 여자라면 [이런 말 하는 것이] 놀랍지 않아 ... 남편조차 이슬람에 대한 필름을 만들면 계속 문제인데 🙄

당연시했다. 여성 흡연을 ‘비행’으로 규정하고 남성 흡연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남성중심적 시각이 이 댓글에 내포되어 있다.³⁷⁾ 두 번째 댓글이 예시하듯, ‘비아냥거림’ 범주의 글이 선호하는 또다른 소재는 그녀의 남편 하눔이다. 그는 이슬람을 소재로 한 대중성 있는 영화를 제작하여 흥행에 성공한 감독이었다. 하지만, 이슬람에 대한 다원적 시각을 통해 보수적, 남성중심적 이슬람을 비판하는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주류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자유주의자로 낙인찍히기도 했다(Inaya 2011). 이러한 평가가 그녀에게 투영됨으로써, 그녀의 인터뷰는 자유주의에 부여된 부정적 속성, 예를 들면 자의적, 비논리적, 서구적, 반(反)이슬람적인 속성을 가진 것으로 규정되었다.

부정적 댓글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그녀의 인터뷰 내용이나 질답 착용 방식에 대한 비판이었다. 비판적 논조의 글 다수는 1~2 줄로 작성되었지만, 긴 주장을 제시하거나 쿠란 구절을 인용하는 글 역시 존재했다. 이를 예시할 brownbox라는 필자의 댓글(33번) 중 일부는 아래와 같았다.

자스키아씨, 다른 무슬림 여성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당신은 “질뽀이 뭐가 잘못이죠?”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당연히 잘못되었죠. 질뽀를 쓰려는 사람은 이슬람 규정에 부합하는 규칙/샤리아를 쫓아야 하며, 그것이 의무죠. ... 우리가 죽을 때 흥정할 수 있나요? 없죠? 이슬람 샤리아 역시 흥정될 수 없어요.

필자는 히잡을 이슬람 교리에 부합하도록 착용해야 하고, 여기에 예외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비판을 제기했다. 자스키아의 인터뷰 내용 중 어느 측면에 초점 맞추는지에 따라 비판적 성격의 글은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37) 같은 점을 문제 삼고 있는 댓글(644번)은 히잡을 쓴 채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녀의 사진을 찾아 포스팅하는 성의를 보이기까지 했는데, 과거 이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에도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https://yusaksunaryanto.wordpress.com/2008/07/02/zaskia-adya-mecca-dan-aib-sinetron-religi-karena-merokok/>(2016년 4월 15일 접속).

첫 번째 범주의 비판글은 인터뷰 내용 전체가 아닌 제목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통 질빚이 이슬람 규정에 어긋남이 지적되었는데, 미디어 보도에서 거론된 ‘몸을 가림(menutup)’과 ‘몸을 둘러쌈(membungkus)’의 대조가 자주 이용되었다. 즉, 몸에 꼭 끼는 옷을 입기 때문에 몸매를 숨기도록 한 원래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슬람 교리를 부각할 경우 논의는 히잡 착용 의무의 취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 비판글은 몸매를 드러냄으로써 남성을 유혹하거나 남성의 성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적인 문제와 연관되기에 이 범주의 글에는 저속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Wangbadan이라는 필자에 따르면(654번) “오토바이를 탈 때 질빚은 운전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며 ... 특히 [질빚을 쓴 오토바이 운전 여성이] 자세를 똑바로 해서 가슴이 볼록 튀어나올 때 [그러하다].”

비판적 글의 두 번째 범주는 자스키아의 인터뷰 내용 중 히자버 담론과 공유되는 부분을 문제로 삼았다. 히잡 착용 규정을 모르거나 규정에 맞는 옷이 없기에 질빚을 입게 되었다는 히자버의 주장에 대해 비판글은 히잡 관련 교리에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실임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변명에 불과할 뿐이라고 단언했다. 자스키아의 인터뷰에 나타나 있지 않은 히자버의 주장, 즉 히잡과 패션의 양립가능성 역시 비판의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예를 들어 “질빚 착용 목적은 ... 유행을 좇거나 패션 감각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64번)”이며 “히잡이나 질빚을 유행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71번). 이러한 비판은 질빚뿐 아니라 히잡을 패션화한 집단 모두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세 번째 범주의 글은 기사에 있는 자스키아의 입장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데, 외적 형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즉, 무슬림으로서의 의무는 의도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만으로 타인을 평가할 수 없다는 자스키아의 주장은 용인될 수 없다. 이러한 비판글에서는 질빚 착용 여성의 의도 역시 비판되는데, 그것이 종교적 규칙을 따르려는 마음이 아니라 남에게 잘 보이려

하거나 자기 몸매를 과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평가되었다(20번).

외적 형식을 경시하는 자스키아의 입장은 이들 비판글에 따르면 자유주의적인 태도였다. 그것의 문제점을 Paidy라는 필자(297번)는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자스키아는 하능의 부인이지, 그렇지?

무슬림 남성, 여성 모두 조심해야 해.

우리의 종교는 지금 유명인과 대중문화를 통해 파괴되고 있는 중이야.

쉬운 예를 들자:

영화 “?”³⁸⁾ ==> 감독이 하능

잘못된 길로 이끄는 주장(질북 관련 문제) ==> 자스키아 메카

서구식 대중문화를 통해 자유주의가 침투해오고 있다는 주장은 보수 이슬람 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다(김형준 2008: 352-353). 따라서 서구식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자스키아와 그녀 남편에게는 자유주의적이고, 반(反)이슬람적이라는 낙인이 부여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많은 댓글은 음담패설적 성격을 가지며, 성적 표현, 관음증적 욕구 표현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 댓글 중 상당수는 자스키아에게 질북을 입거나 옷 벗은 사진을 찍어 포스팅하도록 요구했으며, 일부 글에서는 질북 착용 여성의 사진이 포스팅된 후 성적 코멘트가 덧붙여졌다. 예를 들어 몇몇 댓글에서는 ‘질북’의 ‘질’을 ‘질랏(jilat: 활다)’으로 변형시켜 ‘질랏 북스(jilat boobs)’와 ‘질랏 메멕(jilat memek)’과 같은 표현을 만들었는데, 이는 ‘유방을 활다’, ‘성기를 활다’를 의미했다.

640개의 댓글 중 자스키아의 주장에 우호적인 글은 38편이었다. 이 중 26편은 인터뷰 내용에 동의를 표하거나 이 댓글에 동의하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자스키아의 주장이 아닌 히자버의 주장에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

38) “?”는 하능이 2011년에 제작한 영화이다. 급진 이슬람 단체는 이 영화를 자유주의적 성향으로 규정하였고, 영화 상영에 항의하는 대중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하능의 시각이 무슬림의 믿음을 훼손시킴으로써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Inaya 2011).

했다. 자스키아에 동조하는 댓글에서 부각된 점은 질북 착용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무슬림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yudhiyustira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자신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61번).

규정에 맞는 히잡이 뭐야? 히잡은 히잡일 뿐이야 ... 규정에 맞는 히잡이라는 표현의 출현은 배타적이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지 ... 새로 히잡 쓴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할 필요는 없어 ... 내 의견은 이정도야, 뭐 하러 법석을 부려.. 나쁘다는 낙인을 그렇게 쉽게 찍으면 안되지.

이 댓글에서는 특정한 방식의 히잡만이 종교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비판되었다. 또한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만으로 낙인을 찍으려는 경향이 문제시되었고 히잡이 개인의 사적인 문제임이 주장되었다. 동의 댓글 중 극히 일부는 자스키아의 의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명확하게 자유주의적 관점을 표현하기도 했다. 1433150의 글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글 아래에는 정성스럽게 작성된 댓글이 첨부되어 있었다. 두 글의 일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즈띠하드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부합하도록 이슬람 교리를 재해석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1433150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히잡을 써야 하는 현실이 고려된 교리의 재해석을 요구하는데, 이는 자유주의에서 강조되는

〈표 3〉 자유주의적 관점을 표현한 댓글과 비판 댓글

번호	id	댓글
38	1433150	중요한 점은 지금처럼 진보하는 시대에는 ... 질북이라 불릴 만한 히잡 착용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야.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슬람에는 ... 이즈띠하드(ijtihad)라는 말이 있는 거야.
470	thepsyched13	당신 의견에 ... 이즈띠하드가 뭐지. ... 이즈띠하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대로 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해, 이즈띠하드를 행하는 것이 아무에게나 용인되지 않아. 모든 사람이 이즈띠하드를 행하게 되면 질북 현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슬람의 규정은 하찮게 되어버리지.

맥락적, 역사적 해석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1433150을 비판하는 thepsyched13의 글은 보수적 시각에 근거하고 있으며, 경전 내용의 문자 그대로의 해석과 교리의 일관된 적용을 지지했다.

보수적, 남성중심적 시각을 전면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음에도 자스키아는 인신공격과 음담패설의 대상이 되었고, 과거 행적까지 들추어지며 비난을 받아야 했다. 익명성이 보장됨으로 인해 개인의 의견이 과장되거나 극단화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고려할지라도 자스키아 인터뷰에 대한 비판글은 질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어떤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스키아의 인터뷰와 질북을 대상으로 한 토론에 네티즌이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무슬림 여성의 복장에 대해 말하고 싶은 점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질북 관련 기사가 미디어를 통해 자주 보도되었다는 사실과 연결될 경우, 질북에 대한 열광적 반응은 무슬림 여성의 복장에 간여할 수 있고, 간여해야 한다는 입장에 무슬림 대중, 특히 남성들이 동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스키아 인터뷰를 비판하는 글 중 일부가 그 화살을 히자버에 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대중의 관심이 단순히 질북에만 놓여 있지 않고 히잡 일반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질북에 대한 대중적 관심, 그에 대한 비판, 대안적 담론 형성의 부재 등으로 인해 질북 착용 여성은 옷을 입을 때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보다 더 많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질북 착용 여성에게 국한되지 않으며, 히잡을 쓰는 여성에게도 확장될 수 있다. 자신의 히잡 스타일이 남성중심적 이슬람에서 강제하는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상황에 이들 역시 놓이게 되었다(Hanifah 2015).

6. 맺음말

명명 작업은 그 말로 지시되는 사물의 특성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려는 행위이다(Foucault 1994: 116; Graham 2013: 229).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질북이라는 표현의 출현과 유행은 인도네시아 히잡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전까지 뚜렷하게 규정되지 않던 현상을 정의할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질북 개념은 방임적 태도를 취하던 남성이 여성의 복장에 간여하고 이를 자신들이 재단해야 하는 문제로 포섭하려 하는 데 일조했다. 우연히 제기된 질북 개념을 통해 여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무슬림 남성의 욕구(Stowasser 1994: 130)가 표출되고 정당화되었다.

히자버들의 활동은 질북을 둘러싼 논란을 보다 복합적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질북 착용 여성에 대해 호의적인 자세를 취하며 보수적, 남성중심적 입장에 반대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슬람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엄격한 히잡 착용 기준을 고수함으로써 이들은 보수적 입장에 원론적으로 동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질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대하지 못했고 주변적인 면에 의거하여 그에 대한 따듯한 시선을 요구했을 뿐이다.

보수적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히자버들은 질북 착용 여성과 관련되어 이슬람 내부와 외부라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여성성의 현대적 표현과 코즈모폴리탄적인 생활양식을 이슬람과 조화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질북 착용 여성과 반대되는 집단으로 분류됨에 따라 여성성의 표현을 지지하는 이들의 주장은 보수적 이슬람 세력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

질북 논란은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복장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었다. 이는 히잡 착용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수적 기준을 따르는 여성조차 복장에 대한 자기검열을 강화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여성의 삶에 간섭하려는 남성들의 목적 달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질북과의 이분법적 구도의 형성으로 인해 히자버들이 보수적 이슬람의 비판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것처럼, 히잡 논란은 남성들의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히잡을 둘러싼 상황의 복잡성을 확인해줌과 동시에 여기에 영향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남성의 시각과 대응이 포함되어야 함을 예시한다.

논문접수일: 2016년 12월 13일, 논문심사일: 2017년 1월 4일, 게재확정일: 2017년 1월 11일

참고문헌

김형준

2008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자유주의와 종교다원주의,” 『동아연구』 54: 327-361.

2013 “이슬람 부흥의 전개와 영향: 인도네시아의 사례,” 『동남아시아연구』 23(3): 181-215.

2015 “이슬람화와 성적 표현의 자유: 인도네시아의 미스월드 반대시위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34(2): 263-300.

까르다위 유스포

2011 『이슬람의 허용과 금기』, 최영길 역, 서울: 세창출판사.

Abbas, Saba

2015 “My Veil Makes Me Beautiful: Paradoxes of Zeena and Concealment in Amman,” *Journal of Middle East Women's Studies* 11(2): 139-160.

Al-Saji, Alia

2010 “The Radicalization of Muslim Veils: A Philosophical Analysis,”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36(8): 875-902.

Arimbi, Diah Ariani

2009 *Reading Contemporary Indonesian Muslim Women Writers: Representation, Identity and Religion of Muslim Women in Indonesian Fiction*,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Beta, Annisa R.

- 2014 "Hijabers: How Young Urban Muslim Women Redefine Themselves in Indonesia,"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76(4-5): 377-389.

Brenner, Suzanne

- 1996 "Reconstructing Self and Society: Javanese Muslim Women and the Veil," *American Ethnologist* 23(4): 673-697.

Bullock, Katherine

- 2002 *Rethinking Muslim Women and the Veil: Challenging Historical and Modern Stereotypes*, Her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Islamic Thought.

Delaney, Carol

- 1994 "Untangling the Meanings of Hair in Turkish Society," *Anthropological Quarterly* 67(4): 159-172.

Dian, Pelangi

- 2014 *Brain, Beauty, Belief: Panduan Menjadi Muslimah yang Cerdik, Cantik dan Baik*, Jakarta: Kompas Gramedia.

el Guindi, Fadwa

- 1999 *Veil: Modesty, Privacy and Resistance*, Oxford & New York: Berg.

Febrina, Yessa

- 2014 "Fenomena Gaya Busana Muslimah Kekinian: Studi Kasus pada Komunitas Hijabers di Kota Bengkulu," BA Thesis, Universitas Bengkulu.

Foucault, Michel

- 1994 *The Order of Things*, New York: Vintage Books.

Graham, Loren

- 2013 "The Power of Names: In Culture and in Mathematic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57(2): 229-234.

Hamayotsu, Kikue

- 2013 "The Limits of Civil Society in Democratic Indonesia: Media Freedom and Religious Intolerance,"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3(4): 658-677.

Hamdani, Deny

- 2007 "The Quest for Indonesian Islam: Contestation and Consensus

- Concerning Veiling,” PhD Thesi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Hasbullah, Moefflich
 2000 “Cultural Presentation of the Muslim Middle Class in Contemporary Indonesia,” *Studia Islamika* 7(2): 1-58.
- Jefferies, Louise
 2011 “The Rise of the Jilbabisasi in Indonesia Implications for Christian Witness,”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39(2): 227-238.
- Jones, Carla
 2010 “Materializing Piety: Gendered Anxieties about Faithful Consumption in Contemporary Urban Indonesia,” *American Ethnologist* 37(4): 617-637.
- Lauder, Allan
 2008 “The Status and Function of English in Indonesia: A Review of Key Factors,” *Makara, Sosial Humaniora* 12(1): 9-20.
- Lukens-Bull, Ronald
 2001 “Two Sides of the Same Coin: Modernity and Tradition in Islamic Education in Indonesia,” *Anthropology & Education Quarterly* 32(3): 350-372.
- Macleod, Arlene Elowe
 1991 *Accommodating Protest: Working Women, the New Veiling and Change in Cairo*,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cbrien, Julie
 2009 “Mukadas’s Struggle: Veils and Modernity in Kyrgyzstan,”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n.s.) S127-S144.
- Mernissi, Fatima
 1987 *The Veil and the Male Elite*, New York: Addison-Wesley.
- Perkins, Theresa
 2012 “Unveiling Muslim Women: The Constitutionality of Hijab Restrictions in Turkey, Tunisia and Kosovo,”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30: 529-564.
- Richardson, J. E.
 2004 *(Mis)Representing Islam: The Racism and Rhetoric of British Broadsheet Newspaper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Ridlowati, Nur and Sakienatur Rasyidah

- 2007 “Jilbab Gaul dan Jilbab Besar: Suatu Variasi Islam dalam Masyarakat Modern,” *Shabran* 20(1): 59-64.

Shirazi, Faegheh

- 2001 *The Veil Unveiled: The Hijab in Modern Culture*,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Smith-Hefner, Nancy

- 2007 “Javanese Women and the Veil in Post-Soeharto Indonesi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6(2): 389-420.

Stowasser, Barbara Freyer

- 1994 *Women in the Qur'an, Traditions and Interpretation*,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ahir, Masnun and Zusiana Triantini

- 2014 “Menakar Kontekstualisasi Konsep Jilbab Dalam Islam,” *Qawwam* 8(1): 1-12.

Warburton, Eve

- 2006 “Institutional and Social Regimes of Veiling in Contemporary Indonesia,” Honours Thesis, University of Sydney.

Winter, Bronwyn

- 2006 “Secularism Abroad the Titanic: Feminists and the Debate over the Hijab in France,” *Feminist Studies* 32(2): 279-298.

<인터넷 자료 및 신문 기사>

Cimot, Rara

- 2013 “Hijab Itu Menutup atau Membungkus?” *Kompas*, 2013년 7월 30일자.
http://www.kompasiana.com/herasasmita/hijab-itu-menutup-atau-membungkus_552ff0066ea83413698b4675

Haifa, Ramadhan

- 2012 “Meluruskan Kembali Makna Hijab,” *Suara Islam*, 2012년 8월 24일자.
<http://www.suara-islam.com/read/index/5194/Meluruskan-Kembali-Makna-Hijab>

Hanifah, Pocut

2015 “Fenomena Jilbab,” <http://islamlib.com/gagasan/fenomena-jilbab/>

Inaya, Rakmani

2011 “Questioning Religious Divides,” *Inside Indonesia*, 10월호.

Kartikawati, Eny

2014 “Fenomena Jilboobs: Cari Tahu Soal Fenomena Jilboobs, Ini Komentar Zaskia Mecca.” *Detik*, 2014년 8월 8일자. <http://wolipop.detik.com/read/2014/08/08/150421/2656943/233/cari-tahu-soal-fenomena-jilboobs-ini-komentar-zaskia-mecca>

Kusmaningtyas

2014 “Metamorfosa Jilbab,” *Rahima* 46. http://www.rahima.or.id/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235:metamorfosa-jilbab-fokus-edisi-46&catid=32:fokus-suara-rahima&Itemid=47

Kusnindya, Evie

2002 “Saroni Asikin Fenomena Pemakaian Jilbab Funky Memenuhi Syariat atau Penampilan Modis,” *Suara Merdeka*, 2002년 11월 2일자. <http://www.suaramerdeka.com/harian/0211/11/nas17.htm>

MUI (Majelis Ulama Indonesia)

2001 “Keputusan Fatwa Komisi Fatwa Majelis Ulama Indonesia, Nomor 287, Tahun 2001 tentang Pornografi dan Pornoaksi.”

2005 “Fatwa Majelis Ulama Indonesia, Nomor 7/MUNAS VII/MUI/11/2005 tentang Pluralisme, Liberalisme dan Sekularisme Agama.”

Ummu, Hafizh

2012 “Jadikan Fenomena Hijaber Community Sebagai Momentum Berbusana Syar’i.” *Suara Islam*, 2012년 9월 8일자. <http://www.suara-islam.com/read/index/5328/Jadikan-Fenomena-Hijaber-Community-Sebagai-Momentum-Berbusana-Syar-i>

〈Key concepts〉: hijab, jilbab, hijaber, jilboob, Islamic costume

Hijaber and Jilboob:

Diversification of Hijab and Reactions of Indonesian Conservative Muslims

Kim, Hyung-Jun*

Hijab refers to Muslim women's costume covering the upper part of body, including hair and neck. As a complex of diverse and multi-layered meanings, hijab has been an object of competition and negotiation among Islamic groups of different religious and political outlooks. Recently in Indonesia, two new words were coined to designate different styles of wearing hijab, providing a chance to examine reactions of conservative Muslims to female costumes. One is a combined word of hijab and 'er(s)', 'hijaber(s)', designating Muslim women who support hijab as a fashion. The other is 'jilboob(s)', a combination of 'jilbab', a different expression of hijab, and 'boob(s)', an English word. Jilboob(s) refers to a mode of donning hijab with clothes displaying bodily contou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ontroversies over women's clothing in Indonesia with the emergence of the new words. The focus is on the attitudes and reactions of conservative Muslims to hijaber

*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jilboob. It will be argued that women's clothing, which has not been considered seriously before, is incorporated into Islamic discourse led by Muslim men and that their desires to intervene and control women's affairs are expressed and enforced. In addition, how hijabers' activities, which preceded jilboob, have had impacts on Islamic discourse on women's clothing is also examined. The discussion may deepen our understandings of the ways competition and negotiations between Muslim men and women over the issue of women's clothing can be deployed and of the changes in the religious and social environments where the hijab issue is situated.